특별선교주일

예배와 기도

인종평등선교주일

본 예배 자료들은 인종평등선교주일 준비를 위한 목회자 및 리더 자료집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다른 예배 요소와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세요. **본 자료들은 이사야 49:1-7, 시편 40:1-11, 고린도전서 1:1-9, 요한복음 1:29-42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여, 지친 자들이여 오십시오. 긍휼함을 구하는 자들이여, 소망을 찾는 자들이여 오십시오.

다 같이: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옵니다.

인도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좁아진 사랑과 자비의 그릇을 해결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은혜로 마음이 넓어지고, 정의를 위해 담대하게 되며,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 나아옵니다.

인도자: 시편 기자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이웃을 위한 용기와 기쁨과 치유의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 나아옵니다.

인도자: 성경은 우리가 모든 영적 은사에 있어 부족하지 않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은사를 받은 백성으로, 섬기고, 배우고, 파송될 준비가 된 사람들로 나아옵니다.

인도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사랑이 이미 일하고 있는 곳을 보라.

다 같이: 우리는 나아옵니다. 그리고 볼 것입니다. 따르고, 말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인도자: 우리를 모으시고, 고치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힘찬 목소리로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위한 기도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넓고 환영하는 은혜 안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솔직히 고백하는 피로와, 자비의 고갈, 정의의 지연으로 인한 무게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견고한 땅 위에 세우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비전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편안함과 편리함 넘어까지 확장해 주옵소서. 침묵에 안주했던 우리에게 진실한 말을 주시고, 두려워했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식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분노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례 서약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 어떤 형태로든 악과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선교주일

예배와 기도

인종평등선교주일

본 예배 자료들은 인종평등선교주일 준비를 위한 목회자 및 리더 자료집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다른 예배 요소와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세요. **본 자료들은 이사야 49:1–7, 시편 40:1–11, 고린도전서 1:1–9, 요한복음 1:29–42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주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일이 예배당과 대피소, 교실과 진료소, 부엌과 거리의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은사를 강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옵소서. 무시당한 자들이 세움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며, 고립된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기쁨 가운데 인내하는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절망 앞에 굴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진전이 더뎌도 신실한 섬김을 하게 하시며,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넉넉한 사랑을 주옵소서. 정의와 자비가 만날 때까지 사람들과 함께하고, 진리를 말하며, 자원을 나누고 계속해서 노래하는 이웃들로 우리를 빚어주소서.

우리의 도시와 세상을 위하여, 지도자와 일꾼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정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배고픈 자들과 의미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며, 여전히 "와서 보라"고 초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감리교회의 헌금은 단순한 재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표현입니다. 헌금은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역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언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은사를 나누며, 더 큰 일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공동체를 더욱 가까이 잇는 관계를 만듭니다.**

작성자: 네이튼 알레지 목사(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빌 해리슨연합감리교회 담임)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공동체를 강화하는 연결을 만듭니다.